

EBS, Quam Libet.

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

1	누구? 30p
	“마음을 하나로 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,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(氣)로 들어라. 기는 허령(虛靈)하여 어떤 사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. 오로지 도만이 허령한 것을 모여들게 한다. 허령하게 하는 것이 심재이다.”
2	누구?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? 31p
	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‘이(夷)’라 하고, ... 이 세 가지는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섞이어 하나가 된다. 그 위는 밝지 아니하고, 그 아래는 어둡지 아니하니,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이름 붙일 수 없고,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. 이것을 일컬어 없는 모습이며, 무물(無物)의 모습이라고 하며, 이것을 일컬어 홀황(惚恍 : 황홀)이라고 한다. 맞이하여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,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. 옛 도로 일을 처리한다. 옛 처음 시작을 아는 것을 일컬어 ‘도기(道器 : 도의 규율)’라고 한다.
3	누구? 32p
	“세상에는 일정한 모습이 있다. ...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일정한 모습을 계속 지니면서 훼손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어찌 인의를 갖풀이나 옷칠, 끈이나 맛줄처럼 줄줄이 늘어놓고 도덕의 세계에 노닐 필요가 있겠는가? ...”
4	누구? 35p
	도(道)는 낳는 것이고, 덕(德)은 기르는 것이다.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. ...
5	누구? 37p
	내가 이른바 ‘무정(無情 : 정감을 없앤다고 함)’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은 정감으로써 안으로는 그의 몸을 상해하지 않고 언제나 자연에 맡기되 익생(益生)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.